

음악교육의 본질화를 위한 수업 모형의 개발 방향

이 홍 수

목	차
I. 머리말	Ⅲ. 음악과 학습의 특성에 따른 지도 계획
Ⅱ. 음악과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인식	Ⅳ. 맺는 말

I. 머리말

학교는 개인의 전인적 인격 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교과를 가르친다. 음악과는 음악이 그러한 궁극적인 교육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가장 긴요한 분야들 중의 하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설정된 교과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교사와의 음악예술적 교감을 통하여 음악 예술을 향유하고 음악적 성장을 이루며, 그 결과로 조화로운 인격의 완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우리의 학생들이 12년 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음악을 배운 결과로 음악을 향유할 수 있고, 음악적 성장을 충실하게 이루고 있으며, 음악 교과가 그들의 전인적 인격 완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음악과는 노래부르기만을 가르치기 위해 설정된 교과가 아니다. 노래만 가르칠 일이라면 그것을 굳이 학교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다. 음악이 학교 교과들 중의 하나가 된 데에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음악과는 노래 부르기로부터 얻는 결과를 훨씬 초월하는 크고 놀라운 결과를 낳아야 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음악교육의 의의는 역사상의 어느 시점에서보다도 크고 중하다. 2000여년 전에 Platon은 이상적 도시 국가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음악을 중시했으며, 중세에는 교회와 교회 학교들이 사람들의 종교적 교화를 위해 음악을 중시했고, 17세기의 철학자들은 도덕심을 고양하는 데에 유용하다는 점에서 음

악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18세기에 미국에서 일어난 노래학교(Singing School)운동은 교회 예배의 음악 수준을 높일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1838년, 미국의 공립학교에 음악이 정규 교과로 설정되었을 때에는 음악이 지적, 도덕적, 신체적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그 당위성이 인정되었다. 그 때부터 1920년대까지, 음악교육자들의 관심은 노래 부르기과 독보 연습에 집중되었고,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는 음악가들이 하는 음악 행위, 즉 가창과 기악, 창작, 감상을 하게 하는 데까지로 관심이 확대되었었다. 학생들로 하여금 작곡가들이 만든 악곡을 노래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하게 하고, 작곡자들이 했던 방식대로 작곡하게 하며, 음악가들이 작곡 - 연주한 음악을 들어보게 하는 것이 당시 음악교육의 내용이고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래 음악교육은 훨씬 다양한 관점에서 그 당위성과 지향점이 운위되어 왔다. 시대와 사회상에 따라 음악교육의 목적과 양상이 달라져 왔듯이, 현대 사회에서의 음악교육의 목적과 양상은 어제의 것, 그 사회의 것과 다를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음악교육을 음악의 본질에의 접근이라는 근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음악교육을 인간과 음악, 음악과 교육 등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려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볼 때, 현대 사회의 음악교육은 어제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인식에서부터 시작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Michael Mark는 “음악교육에 있어서 현대라는 의미의 확은, 교사들이 음악에 대한 학생들의 심성적 반응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바로 그 때에 그어진다.”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의 음악교육에서 “현대”는 언제인가? 유감스럽게도 아직은 아니다.

교사들이 노래를 정확하고 유창하고 아름답게 부르도록 가르치면 학생들의 정서가 함양되고, 그 결과로 그들이 조화로운 인격자가 될 것이라고 믿는, 그래서 주어진 음악 시간에 노래 가르치기에만 열중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음악교육을 “현대의 음악교육”이라고 말할 수는 차마 없는 것이다. 우리의 음악교육이 시간적인 의미의 “현대”가 아닌 음악교육적 의미의 “현대”를 만나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오늘날, 국내외의 진보적인 음악교육자들에게 폭넓게 공유되고 있는 음악교육의 현대적 당위와 지향점은 “음악 본질의 체험과 음악적 능력의 향상, 음악적 심성의 계발”로 집약되며, 그것은 “인간에게 왜 음악을?” 이라는 철학적, 미학적, 심리학적 의문과 그 해답으로부터 도출된 새로운 인식에 근거한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학교의 음악교육이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의미있는 음악적 배움을 통해 바람직한 음악적 성장을 이루는 데에 긴요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내하기를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음악교과가

노래만을 가르치려는 교과가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노래 부르기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과 여러 가지 악곡들로 음악예술을 심미적으로 체험하며, 그러한 체험을 통하여 음악적인 능력을 습득하고, 음악적인 심성을 계발하게 함으로써 충실한 음악적 성장, 즉 음악예술 세계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교과이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음악교육 실태는 그러한 기대와 너무나 거리가 멀다. 교과서의 제재곡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노래부를 수 있도록 연습시키는 데에 음악 시간의 대부분이 소요되는 음악 학습에서는 극히 한정된 교육 효과 밖에는 거두지 못한다. 학생들은 해마다, 학기마다, 음악 시간마다 제재곡 익혀 부르기를 중복해서 하지만, 그 밖의 활동은 대부분 생략되고, 타인이 만든 악곡을 소리로 재생하지만, 자신의 음악을 만들 기회를 갖지 못하며, 음악을 감상해도 무엇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안내 받지 못한다. 더욱이, 그들은 “오늘의 한국의 음악”을 별로 만나지 못하며, 우리의 전통음악에 대해 친숙감을 가질 기회도 너무 적다.

그래서, 우리의 음악교육은 가르쳐준 대로 익힌 노래 수십 곡을 유창하게 잘 부를 수는 있으나, 음악을 모르는 그런 성인들을 길러 왔다. 악보를 능숙하게 읽지 못하고, 어떤 한 가지 악기도 자신있게 연주하지 못하며, 자신의 음악적 상념을 자기의 방식으로 작곡해 낼 수 없고, 음악을 들어도 그 악곡에 투영되어 있는 아름다움과 의미를 통찰하지 못하며, 자기 나라의 음악과 다른 나라의 음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기르고 있다. 그 결과로, 학교에서 12년 동안 음악교육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음악의 가치를 내면화하지 못하며, 음악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음악의 참모습과 한국음악적 정서를 상실한 가운데 혼미스런 음악문화 상태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음악교육자들은 자신의 임무가 바뀐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인간의 본성과 음악의 본질을 동시에 생각해야 하며, 음악과 교육을, 현대라는 시점을, 그리고 한국인의 음악문화라는 절대적 의미와 세계 문화 속의 한국문화라는 또 다른 의미를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학생들로 하여금 현재와 미래에, 음악을 통하여 삶의 영역을 넓히고 그 질적 수준을 높히게 함으로써 전인적 자아의 완성과 사회 이상의 실현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다.

II. 음악과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학교의 교과교육 내용은 그 대부분이 개념적이고 논리적이며 추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주로 언어나 숫자 등의 기호를 매개로, 추론적 형식의 사고를 통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이끌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주로 학생들의 지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래서, 결국은 거의 모든 교과들이 공통적으로 “감각과 사고를 통해 사물을 아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며, 그것은 곧, 학교 교육이 개념을 형성하게 하고, 추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게 하며, 획득된 것을 일반화 하게 하는 등의 추론적인 사고의 훈련에 집중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인간이 삶을 통해 만나야 하는 세계 속에는 개념적 이해의 대상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직관에 의해 파악되는 또 다른 대상이 공존한다. 그것이, 학교의 교육이 추론적 사고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에 힘쓰는 것과 같이 비추론적 인식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비추론적 인식은 추론이 아닌 직관의 힘에 의존하여 특정의 대상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대상의 형상을 느끼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예술교과는 학습자로 하여금 예술 작품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 속에 투영된 특정한 미적, 예술적 형상을 느낌을 통해 인식하게 함으로써 예술교과 특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음악과도 수 없이 많은 개념들, 즉 음악의 현상적 개념들과 추상적 개념들, 그리고 음악에 관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러한 개념들은 추론적 사고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그러나, 음악과에서는 음악적 개념의 형성만으로 음악의 학습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 음악과는, 학습자가 추론적 사고를 통해 음악의 개념을 형성하는 동시에, 비추론적인 인식의 과정을 통해, 즉 느낌을 통해 음악 작품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의미를 인식하도록 안내함으로써 그 임무를 다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음악과는 본질적으로 음악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의미를 느낌과 직관에 의해 인식하게 하는 심미의 교과이며 통찰의 교과인 것이다.

음악과가 본질적으로 심미의 교과, 통찰의 교과인 까닭은, 음악 작품이라는 것이 본래 인간의 감정과 음악 특유의 미적 표현 형식이 창출하는 상징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음악 작품은, 작곡자가 인간의 감정으로부터 미적 요소와 의미 요소를 도출하고, 추상작업을 통해 그 요소들에 대한 음악표현적 심상을 형성하며, 그 심상에 따라 소리 매체를 역동적 유기적으로 구조화 함으로써 이루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음악 작품을 다룬다는 것은 직관을 통하여, 작품 속에 투영된 어떤 세계를,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감정과 음악 특유의 표현 형식의 응축인 아름다움과 예술적 의미를 객관화 함으로써 자신의 인식의 세계를 깊게 하고 넓게하고 풍부하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음악과는 구조화된 음향에서 아름다움과 예술적 의미를 체험하는 학습의 전과정이 그에 합당하게 계획되고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음악 학습에서는 악곡을 다루면서 그 구조화된 음향을 지각하고 그에 반응하며, 음향을 재현하고 새로운 음악을 창출하며, 악곡을 분석하고 작품과 연주의 질을 평가하며, 나아가서는 그러한 음악 작품과 활동의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요컨대, 학생 개개인의 내면에 음악의 심미적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이다.

심미적 경험은 특정한 예술 작품이 표현하고 있는 어떤 것들, 즉 인간의 감정과 삶의 양상을 투영하고 있는 심미적 특성을 지각하고 그에 반응하는 것을 뜻한다. 인간이 미적 지각과 미적 반응을 통해 인간과 삶의 심미적 특성을 경험할 때, 그는 개념적 대상으로서의 그것을 경험하고 이해할 때와는 다른 형태의 과정을 통해 인간과 삶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에 공감하고 만족감과 희열을 느끼게 된다.

심미적 경험은 심미적인 대상과 체험자의 심미적 능력이 함께 갖추어질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어떤 대상이, 사람이 이해할 만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지각할 만한 미적 요소와 정관할 만한 질을 갖추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심미적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심미적 대상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그 특정 대상의 내용과 질을 지적, 논리적으로만 지각한다면, 즉 미적으로 지각하고 미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미적 경험이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대상으로부터 미적 지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미적 반응을 포함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높은 수준의 지각이라 할지라도 심미적 경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심미적 경험은 체험 대상이 미적 요소와 정관할 만한 질을 갖추고 있고, 체험자가 그것을 미적으로 지각하고 미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날 음악교육자들의 과제는 ‘음악교육의 본질화 추구’이며, 음악교육의 본질화는 음악의 심미적 체험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교사의 새로운 인식이 요구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Ⅲ. 음악과 학습의 특성에 따른 지도 계획

음악과는 학생들에게 심미적인 음악 체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음악적인 능력의 향상과 음악적 개념 및 원리의 이해를 도모하며, 음악 예술을 내면화 하도록 이끄는 교과인 까닭에, 음악과의 수업은 매우 다양한 목표와 내용을 가진다.

음악과의 수업이 다양한 목표와 내용을 가진다는 말은 수업의 전개 양상이 매우 복잡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대개의 경우, 음악과의 수업은 다른 교과들보다 더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띤다. 음악 학습에서는 음악 작품의 심미적인 질을 느끼고 통찰하는 실제적인 음악 활동 그 자체와 음악 행위 기능을 익히는 활동, 음악적인 앎을 획득하는 활동, 내적 정서와 가치를 자극하는 활동 등이 폭 넓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활동들은 각각 다른 활동들과의 상호 관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음악 수업은 다른 교과의 수업 형태와는 다른, 음악과의 성격에 합당한 수업 형태와 전략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음악과의 성격에 합당한 수업 형태와 전략은 “의미있는 음악적 배움은 음악 체험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다.”는 교사의 확실한 인식에서 산출될 수 있으며, 음향과 음악 작품 및 활동을 통한 그것의 의미 및 아름다움과의 만남(느낌과 통찰), 그것을 이루는 요소와 원리에 대한 사고와 이해(앎), 그것을 체험하는 방법과 원리의 연습(터득), 그것으로부터의 느낌과 감동, 만족감과 자신감의 발생(내적 성취), 그리고 그 모든것으로부터의 가치관과 긍정적인 태도의 형성(내면화)등에 대한 균형 잡힌 교사의 안목 속에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음악 수업은 또한 다른 교과의 수업에서도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사항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학습자의 학년 수준과 개인적 경험 양상, 학생의 필요와 흥미 상태,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 범위, 배당 시간, 시설 및 환경 등 여러 형태의 조건들도 수업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음악 수업은 이렇듯 동시에 포괄해야 할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조건들로부터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단위 학년, 단위 학기, 단위 제재별 또는 단위 시간별 수업 설계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전제를 고찰하고, 교실 상황에서 활용되어야 할 수업안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수업 설계

음악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음악적 체험과 배움이 발생하느냐 아니냐는 교사가 설정한 수업 목표와 교수-학습 전략 및 그 흐름의 질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 목표의 설정에서부터 평가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 면밀하게 조직해야 하며, 그것은 철저하게 교과의 목표와 교과 특유의 교수-학습 원리에 합당해야 한다.

음악 학습 활동의 종류

(가) 음악의 심미적 체험을 위한 학습 활동

- | | | |
|-----------------|---|-----------------------------|
| ① 다양한 악곡의 가창 표현 | } | 음악의 아름다움과 의미 향유
(표현, 감상) |
| ② 다양한 악곡의 기악 표현 | | |
| ③ 즉흥 연주, 창작 표현 | | |
| ④ 다양한 악곡의 감상 | | |

(나) 음악적 개념 및 원리 이해와 음악적 능력 습득을 위한 학습 활동

- ⑤ 음악의 구성 요소 및 생성 원리 탐색, 감득 - 반응, 이해
- ⑥ 가창 표현 능력의 습득
- ⑦ 기악 표현 능력의 습득
- ⑧ 창작 표현의 능력의 습득
- ⑨ 감상 능력의 습득

(다) 음악적 심성 계발을 위한 학습 활동

- ⑩ 음악적 정서의 계발
- ⑪ 음악 애호심의 함양
- ⑫ 음악의 가치 내면화

2. 음악과 수업 모형의 성립

위에 언급한 학습 활동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다른 활동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의 의도에 따라 적절하게 조직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수업 모형이 성립될 수 있다.

음악 수업 모형의 종류

(가) 가창 활동 중심의 수업 : 다양한 악곡의 가창 표현을 중심으로 하는 가운데 음악적 개념의 이해나 가창 표현 능력의 습득, 음악적 정서 및 애호심, 음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함양하는 수업 형태

- 가 - A형 : 가창 활동 중심 - 악곡(주·부교재곡)의 아름다움과 의미 표현
- 음악의 구성 요소 이해 - 음악의 정서적 역할 인식
- 가 - B형 : 가창 활동 중심 - 특정 악곡의 아름다움과 의미 표현

－ 가창 표현 능력 습득－ 삶과 음악의 관계 생각하기

(나) 기악 활동 중심의 수업 : 다양한 악곡의 기악 표현을 중심으로 하는 가운데 음악적 개념의 이해나 기악 표현 능력의 습득, 음악적 정서 및 애호심,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수업 형태

- 나－A형 : 기악 활동 중심－악곡(주·부교재곡)의 아름다움과 의미 표현
－ 음악의 구성 요소 및 생성 원리 이해－개성있게 표현하기
- 나－B형 : 기악 활동 중심－특정 악곡의 아름다움과 의미 표현
－ 창의적인 기악 표현 능력의 향상－자신의 음악적 가능성 탐색하기

(다) 창작 활동 중심의 수업 : 즉흥 연주, 창작 표현을 중심으로 하는 가운데 음악적 개념 이해와 적용, 창작 능력의 습득, 음악적 정서 및 애호심 음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함양하는 수업 형태

- 다－A형 : 즉흥 연주 중심－음악의 구성 요소 및 생성 원리의 이해와 적용
－ 창의적 표현 능력의 향상－표현에 적합한 기법 탐색하기
- 다－B형 : 창작 표현 중심－음악의 구성 요소 및 생성 원리의 이해 및 적용
－ 창작 표현 기능 습득－음악의 본질 이해하기

(라) 감상 활동 중심의 수업 : 다양한 악곡을 감상하는 가운데 음악적 개념의 이해나 감상 능력의 습득, 음악적 정서 및 애호심,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수업 형태

- 라－A형 : 감상 중심－악곡(주·부교재곡)의 아름다움과 의미 수용
－ 음악의 구성 요소 및 생성 원리의 이해－배경과 작품의 관계 탐색하기
- 라－B형 : 감상 중심－특정 악곡의 아름다움 및 의미 통찰하기
－ 감상 능력의 향상－음악의 예술적 가치 이해하기, 음악문화권에 관하여 숙고 하기

이러한 수업 모형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가) 제재(주제재곡과 관련 학습 내용)를 개관하여 단위 수업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명백한 소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 긴요하고도 적절한 부제재곡을 선정한다.

(나) 학생들로 하여금 심미적인 악곡 체험 및 음악 행위에 중심을 두고 활동하도록

록 계획하고, 교사 자신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러한 체험을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향유하게 하고, 음악적 개념을 이해하거나 음악 표현 및 감상의 원리를 터득하게 하며, 음악에 관해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지도하도록 계획한다.

(다) 개념적 접근(한 가지 요소나 원리의 이해에 집중), 경험적 접근(탐색 - 사고 - 조작 - 재현 - 창출 중시), 통합적 접근(관련 개념 포함, 부수적인 활동 포함), 창의적 접근(개성 및 학생 자신의 방식 존중) 등의 수업 접근 방법을 동시에 고려하여 작성한다.

(라) 악기, 음향 기기, 교재 교구를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3. 일반적인 수업 모형의 예 참조

음악과의 수업은 다른 교과들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수업 모형들, 즉 학습자 개개인과 그들의 인성 발달에 초점을 맞춘 수업 모형들, 인간 집단력을 강조하는 수업 모형들, 개념의 지도 방법이나 학문의 탐구, 지적 능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수업 모형 등을 참고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수업 설계를 할 수 있다.

Bruce Joce와 Marsha Weil은 그들의 저서, “수업 모형(윤기옥, 송용의, 김재복 공역, 형설출판사, 1987)”에서 여러 학자들이 개발해 놓은 22가지의 수업 모형을 소개하고 있다. 음악과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이 모형들로부터 유용한 아이디어들을 제 공받는다면 음악 수업은 더욱 효과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Joce와 Weil이 소개한 수업 모형은 정보 처리 모형과 인성 모형, 사회적 상호 작용 모형, 행동주의 모형의 네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모형들을 포함하고 있다.

정보 처리 모형은 학생들의 정보 처리 능력과 생산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데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 모형으로,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을 처리하고 자료를 조직하고 문제를 인지하고 개념을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언어적 비언어적 상징 체계를 사용하는 방법과 관련된 수업 모형들이다. 이러한 모형에는 귀납적 사고 모형(Hilda Taba), 탐구 훈련 모형(Richard Suchman), 개념 획득 모형(Jerome Bruner의 이론에 근거한 모형), 인지 발달 모형(Jean Piaget의 이론에 근거하여 Lawrence Kohlberg와 Irving Siegel이 개발함), 상위 조직자 모형(David Ausubel), 기억 모형(Harry Lorayne, Jerry Lucas이 개발함)

등이 있다.

인성 모형은 개인과 자아의 발달을 지향하는 모형으로, 학습자가 독특한 실체를 조직 구성하는 과정을 강조하고, 학습자가 자신과 환경과의 사이에서 이루는 생산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능력있는 자신의 발견과 정서 상태, 풍부한 인간 관계, 효율적인 정보 처리 능력의 증진을 기대한다. 이러한 모형에는 비지시적 지도 모형(Carl Rogers), 의식 훈련 모형(Fritz Perls, William Schutz), 창조적 문제 해결 모형(William Gordon), 개념 체계 모형(David Hunt), 학급 미팅 모형(William Glasser) 등이 있다.

사회적 상호 작용 모형은 개인과 사회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모형으로, 개인이 타인과 관계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일이나 민주적인 과정에 열중하는 것, 사회에서 생산적으로 일하는 것 등을 중요하게 여기며, 정신과 자아의 발달, 학문적 지식의 습득도 강조한다. 이러한 모형에는 집단 탐색 모형(Herbert Thelen), 사회적 탐구 모형(Byron Massialas), 실험법(국제훈련소), 역할극 모형(Fannie Shaftel), 사회적 상황극 모형(Sarano Boocock) 등이 있다.

행동주의 모형은 내면적인 심리 구조나 관찰이 불가능한 행동보다는 관찰이 가능한 학습자의 행동 변화를 강조하는 모형으로, 자극의 조절과 강화의 원리에 근거하여 소규모의 계열화된 학습 과제를 해결하도록 조직된다. 이러한 모형에는 우발적 행동 모형(B. F. Skinner), 자기 통제 모형(B. F. Skinner), 이완 모형(Rimm과 Master), 엄격한 훈련 모형(J. Wolpe), 직접적 훈련 모형(Robert Gagne) 등이 있다.

IV. 맺는 말

슈타이너는 음악교육자들에 말하고 있다. “음악교육자는 언제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인류사의 발자취와의 깊은 관련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학생들에게 하게 하는 일이 인류사의 전진에 있어서 새로운 창조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위한 요소가 될 수 있는 음악교육을 지향해야 합니다. 나의 학생의 내면에 새로운 음악적 세계가 열린다면, 그것은 우주에 하나의 사건이 이룩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세계사의 흐름을 창조하는 하나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음악 심미적 체험이 가능한 음악 수업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90.
子安美知子, 슈타이너학교의 음악교육. 최시원 역,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88.
Joyce, Bruce and Marsha Weil, 수업 모형. 윤기옥 외 역, 서울:형설출판사, 1987.
Mark, Michael, 현대의 음악교육. 이홍수 외 역,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92.
Mursell, James, 음악적 성장을 위한 교육. 한국음악교재연구회 역,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86.

ABSTRACT

A Suggestion for the Development of Teaching Models to Pursuit the Essence of Music Education

by Hong-soo Lee

School music programs must be of such quality as to enable every student to develop their aesthetic potential to its highest possible level in developing musical understanding, in gaining sufficient proficiency in singing and in playing instrument, and in establishing the valuation of music. Among those programs, the general music should encompass the development of musical competencies which have broad application to the enrichment of living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objectives.

Therefore, the objectives of general music programs should include knowledge of musical compositions and styles, acquaintance with musical patterns, and understanding of how music is composed, performed, and interpreted. The objectives should cover such necessary skills in singing and playing instruments and listening as music reading and improvisation. Music program also has to define the standard of musical taste, attitudes toward music and musicians and musical learning.

The general music program is conducted in segments, year by year and class by class. Each level and phase of the program rightfully fulfills a unique function in relation to the entire program. Therefore, a well-planned sequence and a natural division of musical activity are a neces-

sity; the instruction must be clearly outlined and yet remain inherently flexible. The principles of general music teaching plan are given below :

1. Musical experiences should be selected on the basis of the teaching objectives suggested in the curriculum.

2. Methods of teaching music should be selected in relation to nature of music as an expressive art. Teaching musical techniques, notation, history, or theory outside a musical and expressive context is never justified.

3. Musical experiences should be planned in a natural series and the plan must be divided into related forms of activity. And the structure must be flexible in order to adjust to the different needs and capacities of the students.

4. Singing, playing, listening, and rhythmic and creative activities should be actually merged into one comprehensive activity to promote over-all musical growth and to provide general experience with a wide variety of music.

5. Students' attitudes toward are learned. Those can be achieved by heeding the musical interests of pupils, emphasizing success in music learning, and by doing the best possible job of teaching musical skills, knowledge,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